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3, pp. 773-796.

<https://doi.org/10.15753/aje.2019.09.20.3.773>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성인 학습자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길혜지(吉惠芝)**

김민수(金旼秀)***

논문 요약

본 연구는 2016년에 조사된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만 25세부터 64세까지 성인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양상을 이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3,55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4가지 비형식교육 영역, 즉,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고, 참여유형을 분류한 후에는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성인 2명 중 1명의 비율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참여하였고,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직업능력추구형(44.0%)', '여가문화향유형(31.7%)', '자기계발형(21.2%)', '사회기여추구형(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능력추구형을 참조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3개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3STEP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상태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4가지 참여유형 간 삶의 질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가운데 직업능력추구형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양상을 이해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 영향요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잠재계층분석, 성인 학습자

* 이 논문은 2018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2018.6.23.)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이 연구의 교신저자임(miracle9@snu.ac.kr)

1. 서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은 해방 후 성인교육과 지역사회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교육부 주도로 4차례에 걸쳐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성인의 학습기회 확대 및 학교 밖 학습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이경아, 2008). 이 중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사다리 마련과 함께 지역단위 풀뿌리 평생학습 역량 강화, 지역의 자생적 평생교육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교육부, 2018. 2. 23.일자 보도자료), 성인 친화적인 학습 환경 구축을 통해 성인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2017년 12월 출범한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인문·소양교육의 확대와 평생교육 기회의 고른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법적근거로 하여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인천선언’을 통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교육목표로서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학습기회를 진흥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는데(UNESCO, 2015), 이처럼 평생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학습권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수준에서도 성인들은 전 생애에 걸친 학력 보완 및 자기개발, 직업역량 개발을 통한 구직 및 재취업, 여가 및 문화 향유 등을 목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해 왔다(김진화 외, 2010).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2018)에서 매년 조사하는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통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양상을 살펴보면, 지난 10년여 간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2018년에는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높은 참여율(41.2%)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Jarvis(1995)에 의하면 성인학습자가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개인 배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장은숙, 박명신, 2014: 23에서 재인용). 더욱이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는 어느 하나의 유형이 아닌 복수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 해당한다(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 즉, 평생학습자는 평생교육기관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단순히 참여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맥락과 조건 속에서 참여하면서 평생학습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속성과 특성에 따라 다원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진화 외, 2013: 277).

한편, 교육기관이 다양화되고, 평생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장미옥, 2007: 30). 이는 평생교육 학습자를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주기나 직장인, 지역주민 등과 같은 사회집단 차원에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의 속성과 특성을 이해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신다운, 김진화, 2016). 즉, 성인 학습자들이 각자의 여건에서 주도

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본 연구는 학습동기 및 심리적 특성 등을 토대로 성인 학습자들을 유형화한 4편의 선행연구(김진화 외, 2013; 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 이소정, 2009; 장미옥, 2007)에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군집분석(김진화 외, 2013, 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 이소정, 2009) 혹은 Q방법론(장미옥, 2007)을 활용하여 성인 학습자들을 유형화하였는데, 그 결과를 성인 학습자의 수요를 이해하고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평생교육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Houle(1961)의 참여 동기론을 포함한 다수의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학습동기는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최지수, 2014; 한승희, 신태수, 양은아, 2007; 황정원, 길혜지, 2017). 그러나 Cross(1981)가 제안한 바와 같이 개인 내적/외적 학습동기와 개인을 둘러싼 상황적 요소 등이 반영된 결과는 개인의 평생교육 ‘참여’ 결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성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어느 하나의 영역에만 참여할 수 있으나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복합적인 참여 양상을 고려한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여 성인 학습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6년에 수집된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자료¹⁾를 활용하여 4가지 비형식 평생교육 영역(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을 중심으로 성인 학습자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형화하고, 이러한 참여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OECD(2013)에서는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tics and practices」 보고서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평생학습 참여는 경제적으로 질 높은 고용을 촉진하여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개인의 웰빙과 건강, 낮은 범죄율 등 사회 환원에 기여하며, 정치적으로 시민참여 의식을 높인다는 것이다(OECD, 2003: 26-27). 이는 성인이 인식하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참여유형을 구분한 후에는 참여유형에 따라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만족, 경제적 안정감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성인 학습자의 4가지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고려할 때, 성인 학습자들은 어떠한 참여유형으로 분류되는가?

둘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라 성인의 삶의 질 만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성인 학습자들이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어떠한 양상으로 참여하고 있

1)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중 활용 가능한 최신 자료는 2016년 자료이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년 자료 사용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다.

는지를 이해하고, 성인 학습자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참여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을 학습자 중심으로 보다 이해하고 이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평생학습자는 “전 생애 동안 생활세계 속에서 자신의 성장과 새로운 삶의 창조를 위해 평생학습을 생활화하고 전략화하는 자기주도적인 성장의 주체자”(김진화 외, 2013, 신다운, 김진화, 2016: 28에서 재인용)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은 자기 주도적인 평생 학습자로서 개성 있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패턴을 보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Gross, 1982).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성인교육 참여 모형 중 하나로서 Cross(1981)의 연쇄반응모델(Chain of Response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델에서 성인 학습자들은 성공적인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self-perception)과 교육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education)에서부터 교육 참여기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장애 요인에 대해 연속적인 판단을 하면서, 실제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본다. 반면, Darkeward와 Merriam(1982)이 제안한 사회심리적 상호작용모델(Psychosocial Interaction Model)은 학습 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과 유용성에 대한 지식 등의 요소 역시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특히 성인 학습자의 성인기 이전에 경험한 사회 환경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습참여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대한 양적연구를 살펴보면 노년층이나 여성 등, 성인의 생애주기나 사회집단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참여 실태를 분석하고, Darkeward와 Merriam(198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성인 학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개인배경별로 참여 실태가 상이함을 보고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배경 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의 심리적 동기나 자기주도성 등을 고려하여 성인 학습자만의 고유한 참여 패턴이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결정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심리적 요인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학습동기를 중심으로 성인 학습자를 유형화하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학습자의 배경 특성(생애주기)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두 편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유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참여 실태를 분석한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해 왔다. 예컨대 최운실(2006)의 연구에서 성인 전기는 취업·직업, 성인 중기는 취미오락, 성인 후기는 건강스포츠나 취미오락 영역에 많

이 참여하고 있었고, 학력과 성별에 따라 분야별 참여율이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수경과 류숙희(2017)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기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전체를 고려하면 직업능력(41.4%), 문화예술(36.4%), 인문교양(20.1%), 학력보완(1.6%)의 순으로 참여하나, 노인세대를 보면 문화예술(54.6%), 인문교양(31.4%), 기초문해교육(10.4%)의 순으로 나타나 생애주기별 참여 양상이 다를 것을 보였다. 또한 성인들이 상이한 목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도 다를 것을 보고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부일과 기영화(2009)의 연구에서 노년층들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는 인간관계 도움(16.4%),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15.4%), 삶의 활력(14.0%)의 순이었고 참여희망 분야는 컴퓨터 및 외국어 관련(32.9%), 휴대폰 다루기 등 기본 정보 관련 교육(29.1%), 건강 및 스포츠 관련 교육(15.2%)으로 나타나 연령 간 차이를 나타냈다. 황정원과 길혜지(2017)의 연구에서는 직업 목적으로 동기화된 경우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참여 확률은 높았으나 인문교양 프로그램 참여 확률에는 학습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상당수의 선행연구는 참여 실태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넘어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등을 적용하여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도 하였다. 먼저 개인배경 중에서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로 성별, 연령, 학력, 취업 여부, 가구 소득 수준, 거주 지역이 중요시 되어 왔다(고영상, 2009; 윤지영, 박수정, 2017; 이광현, 홍지영, 2009; 임언, 2006, 한승희, 신택수, 양은아, 2007; 황정원, 길혜지, 2017). 이들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대졸 학력 일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작은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되어 왔다. 반면, 연령의 경우에는 연구결과가 다소 불일치하는 데 임언(2006), 황정원과 길혜지(2017)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 반면, 고영상(2009), 이광현과 홍지영(2009)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그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취업 여부의 영향도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재직자보다 구직자가 비형식 평생교육 참여 확률이 높다는 연구(임언, 2006), 자발적 무직자에 비해 은퇴자와 구직 중인 무직자가 참여 확률이 높다는 연구(고영상, 2009), 주부가 다른 직업군 보다 참여 확률이 높다는 연구(이광현, 홍지영, 2009),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참여 확률은 높으나 인문교양 프로그램 참여 확률은 낮다는 연구(황정원, 길혜지, 2017) 등이 있었다. 반면, 연령, 월평균 소득, 취업 여부 등의 개인 배경은 학습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한승희, 신택수, 양은아, 2007) 또한 있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를 포함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패턴 등 학습 관련 특성에 주목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권재현, 윤선영, 2009; 최지수, 2014; 한승희, 신택수, 양은아, 2007; 황정원, 길혜지, 2017). 특히, 권재현과 윤선영(2009)은 성인들이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인식할 때 평생학습에 대한 가치인식을 매개로 평생학습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의 생애주기, 개인배경 특성 등에 따른 참여 실태를 보고하거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자기 주도적인 평생 학습자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여 성인 학습자들을 유형화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성인 학습자를 유형화함으로써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계 혹은 관련 정책 입안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4편의 선행연구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학습자를 유형화하기 위해 활용한 변수는 학습동기(장미옥, 2007; 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이소정, 2009), 존재적 특성, 기질적 특성, 성향적 특성, 동기적 특성, 학습태도적 특성, 지지환경적 특성, 맥락인지적 특성, 집단학습적 특성, 학습형식적 특성, 제약요인적 특성(김진화 외, 2013)이었다. 특히, 박양주, 황지원, 남신동(2014)의 연구에서는 5개의 학습동기, 즉, 여가·문화·학습의 추구, 개인·사회적 가치 실현 및 관계 확장, 소득 증진 및 사회적 인정, 직무·개인 역량 향상 지향, 학위 취득 추구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고로 분석 대상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에 참여하였거나(김진화 외, 2013; 장미옥, 2007) 향후 참여하게 될 잠재적 학습자(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이었고, 이소정(2009)의 연구에서는 사회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성인 학습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는 주로 K-평균 군집분석(김진화 외, 2013; 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 이소정, 2009)이 활용되었고, 3편의 연구와 달리 장미옥(2007)의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응답자들의 진술을 코딩하고 질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는 분석대상의 규모와도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미옥(2007)의 연구는 48명이 참여하였고, 나머지 연구는 최소 451명(김진화 외, 2013)에서 최대 3,000여명(박양주, 황지원, 남신동, 2014) 응답 자료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성인 학습자를 유형화한 결과, 크게 3개에서 5개 사이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별로 상세 살펴보면, 장미옥(2007)의 연구는 성인 학습자를 크게 취업/직장 생존 갈구형, 개인행복 추구형, 자기개발형으로 나누었다. 여기에서 ‘취업/직장 생존 갈구형’은 취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식, 능력, 역량을 기르고자 하며 자격증이나 학위, 수료증 등을 선호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행복 추구형’은 사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여가나 취미생활을 향유하고자 교육에 참여하나 지역사회나 종교적 봉사 등의 사회활동에는 관심이 없는 유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형’은 지속적으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만족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나 종교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박양주 외(2014)의 연구에서는 특정 목적에 대한 동기와 수요의 적극성을 고려하여 적극수요형, 무관심형, 자아실현형, 경력개발형으로 나누었다. ‘적극수요형’은 실용적 목적과 여가문화 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학습 참여동기가 높고 매우 적극적인 집단이고, ‘무관심형’은 적극수요형과 모든 측면에서 상반된 집단이다. 그리고 ‘자아실현형’은 실

제적 동기나 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이거나 인격 도야나 사회발전 등에는 적극성을 보이는 집단이고, 마찬가지로 ‘경력개발형’은 자아실현형과 상반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소정(2009)의 연구는 노인들의 지배적인 사회참여 유형을 자원봉사 중심형, 종교중심형, 직업중심형, 경로당 중심형, 비참여형으로 나누었다. ‘자원봉사 중심형’은 전반적으로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면서도 자원봉사에 참여가 집중되었고, ‘종교 중심형’은 주로 종교 활동에 집중하되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하였다. 그리고 ‘직업 중심형’은 직업 활동이나 사교활동 참여율이 높고, ‘경로당 중심형’은 경로당에 대한 참여율이 높았으며, 사회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형’ 또한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진화 외(2013)에서는 무관심 평생학습자, 소극적 평생학습자, 의존적 평생학습자, 주도적 평생학습자, 창조적 평생학습자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무관심 평생학습자’는 특성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집단이었는데, 평생학습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고 평생학습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소극적 평생학습자’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이나 욕구가 약해서 어떤 형식의 학습이든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 일회성이 강한 프로그램에만 참가하는 편이다. ‘의존적 평생학습자’는 평생학습의 필요와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 획득에 관심 있으나 의존적이고 수용적인 학습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주도적 평생학습자’는 평생학습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동료학습자들 간 관계형성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개인적 성장과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를 연계시키는데 상대적 관심미 부족한 편이었다. ‘창조적 평생학습자’는 학습욕구와 참여 동기가 매우 강하며 배움을 즐기고 자신에 대한 성찰과 자기창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평생학습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학습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성인 학습자들이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토대로 이들의 참여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7년 이후로 조사·관리하고 있는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통계청 승인통계 제 334009호)」 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해당 조사는 국내 거주하는 만 25~79세 성인남녀(단, 2016년 이전에는 만 25~64세)를 대상으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양상 및 성과, 학습역량 등을 조사하여 평생학습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참고로 조사 첫 해인 2007년에는 3,618명을 조사하였으나 2016년에는 10,679명을 조사하여(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은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25~64세의 성인 학습자이다.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에서는 비형식교육에 대해 정규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으로,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 취득을 우선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13). 또한 이 조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가지 영역 분류(「평생교육법」(2016. 5. 29. 일부 개정) 제2조 및 김진화 외, 2010: 216-218)를 고려하여 영역별 참여 실태를 조사해 오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6가지 영역 중에서도 특히 4가지 영역, 즉,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을 중심으로 그 참여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력보완교육이나 성인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진학준비 강좌, 학점은행제, 문해교육 등에 대한 특정 수요가 있는 대상이 참여하고 있어 다른 영역에의 참여동기와는 다소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기준 사례 수도 각각 16명, 7명에 불과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 적은 편이기에, 성인 학습자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유형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6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4가지 영역만 포함한 실시한 잠재계층의 수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

요컨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4가지 영역의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3,553명의 성인이다. 즉, 2016년 조사의 전체 응답자인 10,679명 중에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4개 영역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은 3,553명(33.3%)이었다. 최종 분석대상의 특성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최종 분석대상의 배경 특성에 관한 기술통계(N=3,553)

구분		명	%	구분		명	%
성별	여성	1,975	55.6	취업 여부	미취업	1,012	28.5
	남성	1,578	44.4		취업	2,541	71.5
연령	25-34세	950	26.7	월평균 가구 소득	150만원 미만	101	2.8
	35-44세	958	27.0		150-300만원	663	18.7
	45-54세	886	24.9		300-500만원	1,520	42.8
	55-64세	759	21.4		500만원 이상	1,191	33.5
					모름/무응답	78	2.2
거주지	서울-광역시	1,629	45.8	학력	중졸 이하	259	7.3
	중소도시	1,437	40.4		고졸	1,235	34.8
	농어촌	487	13.7		대졸 이상	2,059	58.0

2. 분석변수

이 연구에서는 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의 비형식교육 프로그램 분류표(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58)를 참고하여, 4개 영역, 즉,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에 대한 참여 여부를 더미 처리한 변수(참여=1, 비참여=0)를 활용하여 성인 학습자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 영역에는 외국어 자격증 강좌, 컴퓨터 자격증 강좌, 자격증인증 과정, 취업 및 창업 준비 과정, 직무능력향상교육 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문교양교육’ 영역에는 경제경영 강좌, 생활 외국어 강좌, 컴퓨터 강좌, 종교교육 강좌, 인문교양 강좌, 가정생활 강좌, 건강 및 의료 강좌가 해당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영역에는 음악강좌, 미술강좌, 스포츠강좌가 포함되며, ‘시민참여교육’ 영역에는 지도자과정, 시민참여교육강좌, 환경생태강좌가 해당된다. 참고로 응답자들은 과거 1년 간 참여한 교육경험에 대해 프로그램별로 상세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영역별로 참여 프로그램이 4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참여한 프로그램을 3개까지만 답하도록 되어 있다.

4개 영역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프로그램 참여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직업능력향상교육이었는데, 평생교육 참여자 2명 중 1명 정도의 비율(52.9%)로 참여하고 있었고, 문화예술스포츠교육(35.5%), 인문교양교육(21.8%), 시민참여교육(2.7%)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나아가 해당 영역에 참여한 경우 몇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 최대 92.1%(문화예술스포츠 교육)에서 최소 81.2%(직업능력향상교육)까지의 학습자들은 1개의 프로그램에만 참여하고 있었고 다만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경우 3개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는 비율이 2.7% 정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87.6%(3,100명)의 응답자들이 단 1개 영역에만 참여하고 있었고 2개(11.6%), 3개 이상(0.9%)의 순이었다. 참고로 한국교육개발원(2017: 35)의 분석에 따르면 비형식 프로그램에 2개 이상 참여한 성인들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N=3,553)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		
	명	%	명	%	명	%	명	%	
미참여	1,674	47.1	2,778	78.2	2,290	64.5	3,458	97.3	
참여	소계	1,879	52.9	775	21.8	1,263	35.5	95	2.7
	1개	1,527	43.0	678	19.1	1,163	32.7	85	2.4
	2개	255	7.2	74	2.1	92	2.6	7	0.2
	3개이상	97	2.7	23	0.6	8	0.2	3	0.1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Mplus 8.1을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4가지 변수 모두 참여-미참여로 구분되는 범주변수이며, 이들 영역의 프로그램 참여를 중심으로 성인 학습자들을 하위 잠재계층으로 유형화하고 각 참여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주된 연구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잠재계층분석은 확률이론을 바탕으로 모형적합도(model fit)를 고려한 통계적 절차를 통해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므로 분석대상을 비교적 정확히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Magidson & Vermunt, 2002), 최근 교육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최적의 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부합도 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 검증 등의 통계적 기준을 충족하는 지뿐만 아니라, 분류되는 사례 수 및 해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신혜숙, 2015; McCrae, Chapman, & Christ, 2006). 참고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부합도 지수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가 있는데, 이들 지수 값이 작을수록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노언경, 정송, 홍세희, 2014). 그리고 Entropy 값을 통해 잠재계층이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의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오차가 적어 잠재집단이 잘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Muthén & Muthén, 2004), 특히 그 값이 0.8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좋다고 볼 수 있다(Clark, 2010). 또한 조정된 차이 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T)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최대우도 비율 검증(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활용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검증할 수도 있다(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이 외에도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계층별 사례 수와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선행연구에서는 1% 혹은 5% 이하의 비율로 나타나는 계층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신혜숙, 2015: 62). 그런데 본 연구의 경우 시민참여교육 참여율이 0.7% 정도로 나타나(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52), 1% 미만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범주변수의 잠재계층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 식은 다음 ①과 같다(Magidson & Vermunt, 2002).

$$P(y_i = 1) = \sum_{k=1}^k P(c = k)P(y_i = 1|c = k) \dots \dots \dots \textcircled{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를 포함하여 잠재계층을 분석 시 추정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선행 연구(Wang & Wang, 2012; 김동일 외, 2013: 2148에서 재인용)를 참고하여, 우선 4가지 비형식교

육 프로그램 참여만 고려한 무조건 모형을 설정하여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여 성인 학습자들을 각 계층으로 분류한 후에는 이들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Asparouhov와 Muthén(2013: 24)이 제안한 R3STEP 방법을 적용한 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R3STEP 방법은 무조건 모형을 활용한 잠재계층분석 과정에서 얻은 잠재계층 사후분포를 토대로 각 개인에 대해 가장 확률이 높은 잠재계층을 추정한 후, 분류 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고려하여 예측변수들이 잠재계층 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모형을 통해 추정한 계층 수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Vermunt, 2010). 구체적으로는 선행연구(최운실, 2006; 이광현, 홍지영, 2009; 임언, 2006; 윤지영, 박수정, 2017; 전해숙, 2009, 황정원, 길혜지, 2017)에서 비형식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보고한 개인 배경변수들을 보조변수(auxiliary variable)로 설정하고, 이를 잠재계층을 예측하기 위한 변수로서 사용하였다. 참고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학습동기를 주요한 예측변수 중 하나로 언급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개인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영역별로 학습동기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이 3개 이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보조변수들은 잠재계층을 다항로지트모형을 통해 예측하는 변수에 해당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 식은 다음 ②와 같다(Asparouhov & Muthén, 2013: 8).

$$P(C = 1|X) = 1 / (1 + \text{Exp}(\alpha + \beta X)) \dots\dots\dots \textcircled{2}$$

마지막으로 성인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참여유형별로 삶의 질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R3STEP의 경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동시에 검증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류오류를 고려하면서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하기 전후의 잠재계층을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Bakk와 Vermunt(2016)가 제안한 BCH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사후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각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93.1%, 94.1%, 99.6%, 99.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잠재유형별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4가지 종속변수(삶의 만족도) 간 상관이 최소 0.356(정신적 건강-경제적 안정감)에서 최대 0.608(정신적 건강-육체적 건강)로 나타나 MANOVA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 분류에 대한 탐색

우리나라 만 25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들을 대상으로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잠재계층을 적절하게 분류하기 위해, 잠재집단 수를 1개에서 순차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정보부합도 지수(AIC, BIC, SABIC), 분류의 질(Entropy), 통계적 모형비교 검증결과(LMRT, BLRT)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잠재계층 수가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Entropy 값은 0.980로 나타나 분류의 질 역시 매우 우수한 편이었다(Clark, 2010).

<표 3> 성인 평생학습 참여자에 관한 잠재계층 분류 기준

잠재 계층 수	정보부합도 지수			분류의 질	통계적 검증	
	AIC	BIC	SABIC	Entropy	LMRT	BLRT
1	14110.686	14135.373	14122.663	1	-	-
2	12255.517	12311.064	12282.466	0.941	0	0
3	10994.822	11081.229	11036.744	0.940	0	0
4	10744.469	10861.735	10801.363	0.980	0	0
5	10751.592	10899.717	10823.457	0.947	0.421	0.146

주1: LMRL과 BLRT는 p-value를 제시함. 단, na는 해당사항 없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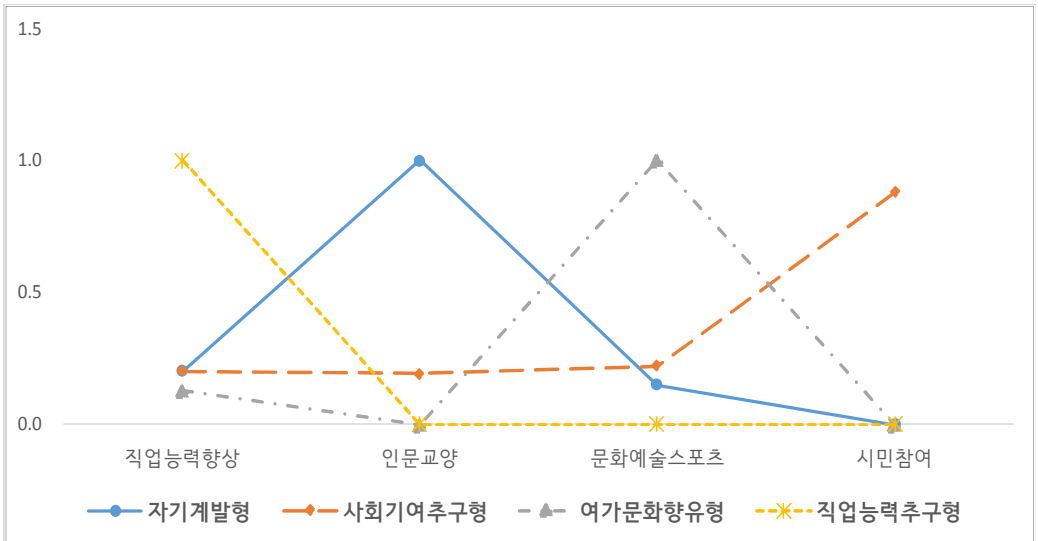
최종 결정된 4개의 잠재계층에 따라 분류된 평생교육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표 4>,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유형은 ‘자기계발형’으로서 전체의 21.2%(755명)가 해당한다. 이들은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일부는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스포츠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는 집단이었는데 반면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즉, 자기계발형은 주로 개인 차원에서 자기계발에 관심 있으나 사회기여 활동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성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기여추구형’으로 3.0%(108명) 정도로 나타나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작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 유형에 속하는 성인들은 지도자 과정, 시민참여교육 강좌, 환경생태 강좌 등 시민참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3가지 영역에도 비교적 고른 참여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만족감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가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여가문화향유형’으로 음악, 미술, 스포츠 강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여가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형식 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일부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는 유형을 의미하며, 전체 중에서 31.7%(1,128명)를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유형은 ‘직업능력추구형’으로서 전체의 44.0%(1,562명)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유형이다. 그런데 이 유형에 속하는 성인 학습자들은 4가지 영역 중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에만 참여하고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취업이나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잠재계층별 평균 및 구성 비율(N=3,553)

	자기계발형	사회기여추구형	여가문화향유형	직업능력추구형
직업능력향상	0.20	0.20	0.13	1.00
인문교양	1.00	0.19	0.00	0.00
문화예술스포츠	0.15	0.22	1.00	0.00
시민참여	0.00	0.88	0.00	0.00
사례 수 (%)	755(21.2)	108(3.0)	1,128(31.7)	1,562(44.0)

주1: 각 유형별 참여(1)-미참여(0)로 더미코딩한 변수이므로 평균은 참여율을 의미함.



[그림 1] 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의 특성

2.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상의 4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은 무엇인지 다항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2명 중 1명 정도의

비중으로 나타난 ‘직업능력추구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다른 유형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능력추구형’에 비해 ‘자기계발형’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성별, 연령, 취업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그리고 취업 중인 성인들은 미취업 상태인 성인들보다 ‘직업능력 추구형’에 비해 ‘자기계발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25-34세, 35-43세, 44-45세의 연령대 모두 55-64세인 고연령층에 비해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이 낮았다. 둘째, ‘직업능력 추구형’에 비해 ‘사회기여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능력 추구형’에 비해 ‘사회기여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25-34세, 35-43세 연령대에서 55-64세인 고연령층 보다 그 가능성이 낮았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은 서울/광역시 그리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들보다 ‘직업능력 추구형’보다는 ‘사회기여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취업 중인 성인들 역시 미취업 상태인 성인들보다 ‘직업능력 추구형’보다는 ‘사회기여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 추구형’에 비해 ‘여가문화향유형’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능력 추구형’보다는 ‘여가문화향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25-34세, 35-43세, 44-45세의 연령대 모두 55-64세인 고연령층에 비해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이 낮았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은 서울/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들보다 ‘직업능력 추구형’보다는 ‘여가문화향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취업 중인 성인들 역시 미취업 상태인 성인들보다 ‘직업능력 추구형’보다는 ‘여가문화향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표 5>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 영향요인(N=3,540)

구분	자기계발형		사회기여추구형		여가문화향유형		
	b	SE	b	SE	b	SE	
남성 (참조집단: 여성)	-0.830***	0.114	-0.630*	0.253	-0.930***	0.094	
연령 (참조집단: 55-64세)	25-34세	-0.801***	0.170	-1.115**	0.396	-0.826***	0.145
	35-43세	-0.408**	0.159	-1.269**	0.411	-0.499***	0.137
	44-54세	-0.471**	0.161	-0.443	0.286	-0.276*	0.129
학력 (참조집단: 중졸이하)	고졸	-0.090	0.229	-0.384	0.321	-0.220	0.178
	대졸이상	0.346	0.239	-0.551	0.403	-0.298	0.189
거주지 (참조집단: 농어촌)	서울/ 광역시	0.222	0.159	-0.950***	0.259	0.778***	0.141
	중소도시	0.016	0.158	-1.088***	0.256	0.170	0.142
취업 (참조집단: 미취업)	-1.649***	0.125	-0.992***	0.267	-1.471***	0.108	

주1: 준거집단은 직업능력추구형으로 설정하였음.

*p<.05, **p<.01, ***p<.001

3.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별 삶의 만족도 인식 차이 분석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유형별로 성인 학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4가지 측면, 즉,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만족, 경제적 안정에 관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Pillai의 criterion 값이 26.628(p<0.001) 그리고 Wilks의 λ 값이 27.083(p<0.001)로 나타나 참여유형별로 4가지 측면의 삶의 질 만족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만족의 내용에 따라 만족도가 높은 참여유형은 다소 상이하였다. 예컨대 ‘자기계발형’과 ‘사회기여추구형’은 정신적 건강과 사회참여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여가문화향유형’은 육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전반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직업능력추구형’의 경우 만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표 6> 프로그램 참여유형에 따른 삶의 질 만족의 차이 분석결과(N=3,55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유형				SS	MS	F (p-value)	사후검증 (Scheffe)
	1 (n=755)	2 (n=108)	3 (n=1,128)	4 (n=1,562)				
정신적 건강	3.97 0.71	3.99 0.84	4.00 0.64	3.78 0.68	39.972	13.324	29.134*** (0.000)	1,2,3> 4
육체적 건강	3.68 0.88	3.73 0.93	4.03 0.77	3.63 0.80	114.316	38.105	57.475*** (0.000)	3>1,2,4
사회참여 만족	3.85 0.78	3.95 0.70	3.77 0.75	3.71 0.76	13.942	4.647	7.987*** (0.000)	1,2> 4
경제적 안정감	3.37 0.89	3.40 0.96	3.30 0.83	3.37 0.78	4.475	1.492	2.194 (0.087)	-

주1: 유형1=자기계발형, 유형2=사회기여추구형, 유형3=여가문화향유형, 유형4=직업능력추구형

주2: 각 유형별 평균과 표준오차를 제시함.

주3: 잠재계층 분류오류를 고려하지 않은 MANOVA 분석결과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p<.05,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성인 학습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양상 및 참여 이유가 평면적이지 않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실제 데이터에 근거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학교교육과는 달리, 평생교육은 성인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개인 특성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학습 동기가 표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장미옥, 2007).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6년에 수집된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성인 학습자들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을 구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 상의 프로그램 영역 분류 및 사례 수 등 통계적 분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비형식교육의 4가지 영역(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중 단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3,553명(만 25세-64세 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참여유형을 분류하고, R3STEP 방식을 적용하여 각 참여유형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의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 비형식 평생교육 영역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형식 평생교육에 참여한 성인 2명 중 1명은 직업능력향상교육(52.9%)에 참여하고 있었고, 문화예술스포츠교육(35.5%), 인문교양교육(21.8%), 시민참여교육(2.7%)의 순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최소 81.2%(직업능력향상교육)에서 최대 92.1%(문화예술스포츠 교육)의 성인 학습자들은 영역별로 1개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참여한 성인들의 경우 3개 이상 참여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2.7%). 그리고 참여자 중 87.6% 정도가 단 1개 영역만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대부분 단일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난 1년 간 학습경험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프로그램 수강 횟수 혹은 강도(참여 시간) 보다는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하고 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를 통해 신뢰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여 참여 강도(시간)이나 수강 프로그램 수 등을 반영한 연속 변수 중심으로 분석한다면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보다 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4가지 비형식 평생교육 영역에 대한 참여를 고려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 학습자들은 크게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직업능력추구형(44.0%)’, ‘여가문화향유형(31.7%)’, ‘자기개발형(21.2%)’, ‘사회기여추구형(3.0%)’의 순으로 그 비중이 많게 나타났다. 이상의 참여유형은 장미옥(2007)이 Q방법론을 활용하여 성인들의 학습동기를 토대로 ‘취업/직장 생존 갈구형’, ‘개인행복 추구형’, ‘자기개발형’으로 나눈 것과 다소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직업능력추구형’은 4가지 영역 중에서 오로지 직업능력향상교육 관련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평생교육 참여의 목적을 취업을 위한 재교육이나 직업 준비 훈련 등에 한정 짓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 20-40대 성인 1,1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53.4%가 평생직장이 없다고 생각하며(디지털타임즈, 2019.4.30.일자 기사),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500개 이상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홍영란, 2016)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직업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

는 성인들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가문화향유형’은 음악, 미술, 스포츠 강좌를 중심으로 개인 차원에서 여가를 누리는 데 관심 있는 집단이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직업능력향상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지어진다. 다만, 비형식 평생교육 영역 분류에 있어 직업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에 외국어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문해 개념의 외연이 넓고, 쓰고, 셈하기를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 컴퓨터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 리터러시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Horton, 2007),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또한 여가문화 향유 동기의 연장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계발형’과 ‘사회기여추구형’의 경우 여러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자기계발형’의 경우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참여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자기계발형’은 자기만족이나 자기계발의 필요 등 개인적인 수준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회기여추구형’은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도자과정, 시민참여교육, 환경생태강좌 등을 통해 시민참여 관련 교육을 중시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를 가진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소정(2009)에 의하면 자원봉사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사회참여가 활발하였는데, 이는 타 영역에서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자원봉사활동을 매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정도의 적극성이 다른 영역에서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였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황정원과 길혜지(2017)의 연구에서 성인 학습자들이 자원봉사, 기부, 동아리활동, 사회단체 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과 인문교양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4가지 참여유형에 대해 어느 유형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가치 판단은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사회기여추구형’의 경우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만족, 경제적 안정감 등 삶의 질 만족에 있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다른 영역에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가 및 지역 평생교육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인 학습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직업능력추구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3개 참여유형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R3STEP으로 분석한 결과, 학력을 제외한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인 학습자들이 ‘자기계발형’, ‘사회기여추구형’, ‘여가문화향유형’에 비해 ‘직업능력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은 공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25세부터 43세까지 연령대에서 55-64세의 고연령층보다 높고, 미취업한 상태의 성인보다 취업 중인 성인이 더 높았다. 반면 참여유형별로 차이를 보인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44-54세 연령대의 성인들은 55-64세의 고연령층보다 ‘자기계발형’이나 ‘여가문화향유형’에 비해 ‘직업능력추구형’에 속

할 가능성이 높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보다 ‘사회기여 추구형’에 비해 ‘직업능력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런데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성인들에 비해 ‘직업능력추구형’에 속할 가능성이 ‘사회기여추구형’보다는 높고 ‘여가문화향유형’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직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염두에 둘 때 취업 상태인 남성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양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윤지영과 박수정(2017)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자 집단의 경우에는 대졸이상 고학력 자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높을 사람일수록 비형식교육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앞으로 ‘직업능력추구형’에 속하는 성인들의 요구를 보다 실제적으로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구분된 4개 참여유형에 따라 성인 학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질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사회참여 만족, 경제적 안정감에 대한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유형별로 그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측 가능한 바와 같이 만족의 내용별로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다소 상이했는데, 예컨대 육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은 ‘여가문화향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전반적으로 ‘직업능력추구형’의 경우 나머지 3개 유형들보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정신적·육체적 건강 및 사회참여 만족에서 모두 그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함에 있어 생애주기별, 하위집단별 참여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시사함과 동시에(최운실, 2006), 평생교육 참여가 단지 직장에서 생존 혹은 이직을 위한 계속교육의 차원에서만 인식되지 않도록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의 교육적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25세부터 64세까지 성인들이 비형식 평생교육의 4가지 영역, 즉,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스포츠교육, 시민참여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참여를 고려할 때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개인수준 요인에 따라 참여유형이 달리 결정될 수 있고, 나아가 평생교육 참여의 성과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삶의 질적인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주요 결과로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비형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각 유형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형화하고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였으나 가용자료의 한계 상 각 참여유형별 성인 학습자들의 평생학습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학습 관련 자기주도적인 특성, 참여 강도(시간) 및 참여 선호 방식과 같은 학습 양식에 차이가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Cross(1981)는 연쇄반응모델(Chain of Response Model)을 통해 학

습자가 교육활동 참여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심리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 교육적 태도 등이 연쇄적으로 반응한 결과로서 학습 참여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성인 학습자들이 학습 결과에 대해 어떻게 기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습 참여 과정에서 어떻게 학습하고자 하는 지 등 학습양식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하겠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참여유형별로 실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였는지, 교육 성과를 어떻게 기대하는지,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학습에 투자한 시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 지, 집단학습을 더 선호하는지, 어느 시간대에 학습하기를 원하는 지 등 학습방식에 대한 실태를 보다 상세히 조사한다면,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영상(2009).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소에 대한 탐색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2), 105-132.
- 교육부(2018). **교육부,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교육정책 청사진 제시-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18-2022) 발표**-. 2018.2.23.일자 보도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2018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한국교육개발원.
- 권재현, 윤선영(2009).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태도가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5(3), 85-110.
- 김동일, 이윤희, 김영근, 강민철(2013). 청소년 인터넷중독 위험군에 대한 잠재집단 프로파일 분석. **상담학연구**, 14(4), 2143-2162.
- 김진화, 고영화, 권재현, 정민주(2010).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제 개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6(3), 211-236.
- 김진화, 전하영, 강은이, 정민주(2013). 평생학습자 유형의 군집화와 특성프로파일 탐구. **평생교육학연구**, 19(2), 271-300.
- 노언경, 정송, 홍세희(2014).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아동·청소년 비행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5(4), 211-240.
- 디지털타임즈(2019). 2040세대 53% “이제 평생직장 없다”. 2019년 4월 30일자 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50102100558037001&ref=naver
에서 7월 18일자 인출.
- 박양주, 황지원, 남신동(2014). 평생학습 잠재수요집단의 유형 분류: 학습 참여동기에 대한 군집분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0(1), 33-62.
- 신다운, 김진화(2016). 평생학습자의 군집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탐색. **평생학습사회**, 12(4), 25-51.
- 신혜숙(2015).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공동체意識, 학교행복에 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탐색. **교육평가연구**, 28(1), 53-76.
- 윤지영, 박수정(2017). 청년층의 평생학습 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3(3), 51-73.
- 이광현, 홍지영(2009). 학습유형별 평생학습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지방교육경영**, 14, 42-59.
- 이경아(2008). 평생학습 참여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평생학습사회**, 14(2),

117-146.

- 이부일, 기영화(2009).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 연구**, 5(1), 1-23.
- 이소정(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한국인구학**, 32(1), 71-91.
- 임언(200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9(2), 121-149.
- 전수경, 류숙희(2016). 노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특징 및 시사점. **인문사회** 21, 7(4), 637-652.
- 전혜숙(2009). 경제활동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참여 요인 분석. **Andragogy Today**, 12(1), 57-77.
- 장미옥(2007). 성인들의 평생교육 참여 동기유형에 관한 Q방법론적 연구. **Andragogy Today**, 10(1), 1-36.
- 장은숙, 박명신(2014). 성인 여성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동기가 학습몰입과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HRD 연구**, 16(3), 159-183.
- 최운실(2006). 한국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및 관련 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2(1), 1-35.
- 최지수(2014).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학습지속의 관계에서 교육서비스 질의 조절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20(4), 145-174.
- 「평생교육법」 [시행 2016.8.30.] [법률 제14160호, 2016.5.29., 일부개정]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9.12.] [대통령령 제28285호, 2017.9.12. 제정]
- 한승희, 신태수, 양은아(2007). 평생학습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학습자배경, 패턴 및 자기보고 핵심역량이 평생학습참여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학 연구**, 13(2), 93-118.
- 홍영란(2016). 세계경제포럼(WEF) '직업의 미래' 보고서: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교육개발**, 43(2), 19-23.
- 황정원, 길혜지(2017). 비형식 평생학습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 분석: 직업능력향상 및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3(4), 105-127.
- Asparouhov, T., & Muthén, B.O. (2013).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A 3-Step Approach Using Mplus*. Mplus Web Notes: 15. Version 6, February 7.
- Bakk, Z., & Vermunt, J. K. (2016). Robustness of stepwise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ntinuous distal outcom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3(1), 20-31.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Ph.D. diss., Univ. of California.
- Cross, K. P. (1981). *Adults as learners*. San Francisco: Jossey-Bass.

- Darkenwald, G. G., & Merriam, S. (1982). *Adult education: Foundations to practice*. New York: Harper & Row.
- Gross, R. (1982). *Invitation to lifelong learning*. Chicago: Follet.
- Horton, F. W. (2007). *Understanding information literacy: A primer*. Paris: UNESCO.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8338619&target=REPORT&cn=TRKO201100005208>.
- Houle, C. O. (1961). *The Inquiring Min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Jarvis, P. (1995). *Adult at Continuing Education*: Routledge London and York.
- McCrae, J. S., Chapman, M. V., & Christ, S. L. (2006). Profile of children investigated for sexual abuse: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symptoms and servi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6(4), 468–481.
- Magidson, J., & Vermunt, J. (2002). Latent class models for clustering: A comparison with K-means. *Canadia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0(1), 37–44.
- Muthén, L., & Muthén, B.O. (2004). *Mplus User's Guide* (5th ed.). Los Angeles: Muthen and Muthen.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OECD(2003). *Beyond Rhetoric: Adult learning politics and practices*. OECD: Paris.
- Vermunt, J. K., & Magidson, J. (2002). *Latent class cluster analysis*. In J. A. Hagenars & A. L. McCutcheon (Eds.), *Applied latent class analysis* (pp. 89–10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 UNESCO (2015). *Education 2030, Incheon declaration framework for action: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Paris: UNESCO.

-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10일 / 2차 심사 2019년 8월 29일 / 게재승인 2019년 9월 6일
- * 길혜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측정 및 평가'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북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교육정책평가, 역량평가, 다층자료 분석이다.
- * E-mail: eduhj@cbnu.ac.kr
- * 김민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평생교육전공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평생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시민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연구, 평생교육통계연구 등이다.
- * E-mail: miracle9@snu.ac.kr

Analysis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Types and Affecting Factors of Non-Formal Lifelong Education Programs: Focusing of Latent Class Analysis

Kil, Hye-Ji*
Kim, Mi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on-formal lifelong education program participation of Korean adult learners from 25 to 64 years using 2016 Korean Adult Lifelong Learning Survey from KEDI. 3,553 adult learners with participating in the lifelong educational program like a vocational training program, liberal arts program, culture-sports program, and civic program, had been analyzed. After adult learners were classified using latent class analysis(LCA),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type were identified.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ne of the two adults who participated in the non-formal lifelong education program experienced with the vocational training. And participation of culture-sports program, liberal arts program, and civic program were high in the order. Second, adults learners grouped into 4 types regarding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like vocational ability-seeking type(44.0%), leisure-seeking type(31.7%), self development-seeking type(21.2%) and social contribution-seeking type(3.0%).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type by R3STEP, gender, age, residence, employment status were significant factors. Final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individual background and life satisfaction among participation types, especially, life satisfaction of vocational ability-seeking type was lowest overall. These results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nd operate non-formal lifelong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adult learners characteristics by types.

Key words: Non-formal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Type, Affecting Factor, 2016 Korean Adult Lifelong Learning Survey, Latent Class Analysis, Adult learne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